

철도안전 홍보 캠페인 시행

- 국민 안전의식 향상을 위해 전국 주요 철도역에서 동시 시행 -

경영지원안전실(실장 이계환)은 지난 13일 철도관련 기관인 한국철도공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교통안전공단 등 관련기관과 함께 전국 주요 역광장 및 철도 건설목에서 철도안전 홍보캠페인을 시행하였다.

이번 합동캠페인은 2011년에 이어 공단과 한국철도공사 등 유관기관이 합동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서울역, 대전역 등 전국 주요 역사 및 취약건설목에서 홍보기념품을 배포하는 등 전국적으로 캠페인을 시행하였다.

경영지원안전실은 철도안전 홍보 합동캠페인을 통해 철도안전에 대한 홍보효과를 극대화함으로써 철도 이용객 등 국민들의 철도에 대한 안전의식을 높여 철도재해를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영지원안전실은 하반기에도 관련기관과 합동 안전캠페인을 계획하고 있으며, 매년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철도재해 예방을 위해 앞장설 계획이다.

(경영지원안전실 신승섭 기자)



국민들의 철도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2012년도 상반기 철도안전 홍보캠페인 시행

수도권본부(본부장 최성권)는 지난 13일 서울역 광장에서 본부장 등 직원과 교통안전공단 및 철도공사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철도를 이용하거나 선로를 횡단하는 국민들의 철도 안전의식을 제고하여 철도재해를 예방하고 철도의 안전성 및 친환경성을 홍보하기 위한 '철도안전 홍보캠페인'을 가졌다.

금번 시행한 「철도안전 홍보캠페인」행사는 철도안전에 대한 홍보효과 극대화를 위한 행사로서 일상생활에서 지켜야 할 철도안전과 관련된 홍보문구가 새겨진 홍보용기념품을 배부하여 국민들의 철도안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동참을 꾀하였다.

앞으로도 수도권본부는 지속적인 철도안전 홍보를 통해 "빠르고 안전하고 편리한 Rail Network 실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수도권본부 김현권 기자)



장항선 개량 2단계 및 동두천~연천 착수보고회 개최

- 상호협조체계 구축을 통한 효율적이며 경제적인 설계 추진 -



건설본부 일반철도처(처장 양성직)는 지난 12일 설계사, 담당자, 관련부서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장항선 개량 2단계 및 동두천~연천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였다.

장항선 개량 2단계는 호남선 및 전라선에서 발생하는 화물의 우회수송으로 경부선의 부담을 경감하고, 인접 철도망과의 연계성을 통한 운송효율 향상을 위한 사업이다.

동두천~연천 복선전철 건설사업은 수도권 북부지역의 광역교통망 구축을 통한 대용량 광역교통 수요에 대처함은 물론 연천까지 전철 수혜지역을 확장하여 주민 편의 향상에 이바지함은 물론 향후 TSR등 대륙철도 연계에 대비하기 위한 사업이다.

금번 착수보고회는 노반설계 착수단계에서부터 관련부서와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은 물론 과잉설계 없는 경제설계 추진의지를 확고히하고 참석자간의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한편 양성직 일반철도처장은 본 설계 용역이 지반조사 분야를 분담이행방식으로 추진하는 최초의 공단발주 용역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설계사와 지반조사 업체간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과 결정되지 않은 공법 및 노선에 대한 외부 유출시 보안강화를 통한 내실있는 설계가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하였다.

(건설본부 임향섭 기자)

영남본부 품질향상 결의대회 개최

- 철도건설 현장 품질관리 의식 향상 기대 -

영남본부(본부장 이태균) 건설처는 철도건설 현장의 품질향상을 위한 결의대회를 지난 6일 개최하였다.

이번 결의대회는 2011년도 영남본부 관내 건설현장 무재해를 기록하는 등 현장 안전관리가 일정수준에 도달하였다고 판단되어 품질관리 분야에서 동일한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감리단 및 시공사 관계자가 함께 모여 시행하게 되었다.

결의대회는 본부장 당부말씀, 품질관리 현황보고, 현장별 품질관리 방안 보고, 향후 추진계획, 사례발표, 품질향상 의식교육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태균 본부장은 시공중 품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하자발생 최소화를 이룩함으로써, 철도시설물이 품질면에서도 최상의 서비스를 이루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지속적인 품질관리 실행과 의식을 향상하기 위해 "품질의 날"을 지정(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하여 현장별로 품질관리 활동을 시행하기로 하였다.

본부는 결의대회를 통해 품질관리 정보를 상호 교류하고, 우수 및 실패사례를 통한 교육을 시행함으로써, 철도건설 현장의 품질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해 주었으며, 공단, 감리단, 시공사가 함께 노력하여 일등품질을 달성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예정이다.

(영남본부 백성실 기자)



강원본부, 지역사회와 함께 녹색환경 조성

- 원주시 고산리 자매마을에 'KR 숲' 조성 등 나무심기 행사 개최 -



강원본부(본부장 김재규)는 지난 5일 본부장 등 직원 22명과 원주시 호저면 고산리 자매마을 김학수 이장의 10여명이 제67회 식목일을 맞아 소나무 100본과 잣나무 200본 및 산벚나무 100본 등 총400본을 심는 'KR 숲과 꽃길' 조성 식목행사를 개최하였다.

4월의 청명한 날씨 속에서 진행된 이번 식목행사는 자매마을 주민과 지역본부 직원이 함께 'KR 숲' 조성을 위해 잣나무와 소나무를 심었으며 마을회관 앞 도로 주변에 꽃길 조성을 위해 산벚나무를 식재하였다. 이번에 식재한 어린 소나무와 잣나무들이 무럭무럭 자라서 무성한 숲을 이루듯이 공단의 지속적인 발전도 함께 기원하였다.

앞으로 강원본부는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함께 소통하는 봉사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철도공단의 이미지 제고와 더불어 지역 여건에 맞는 활동으로 공단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 할 계획이다.

(강원본부 오재훈 기자)

We are the "VIPS"

영남본부(본부장 이태균) 최강 사업지원부는 2분기에도 업무 내·외적으로 모두가 파이팅하고 더불어 건전한 음주·회식문화 개선에도 시급적 역할을 하기 위해 청사 인근 패밀리 레스토랑(VIPS)에서 결의회를 가졌다.

그간 사무실 인근 식당에서 국민대표 안주객인 삼겹살, 생선튀김 등으로 회식을 하면서 소위 폭탄주, 술잔 좌우로 돌리기 등으로 직원들이 과음에 항상 노출되어 왔으며, 특히 2차 이상 술자리로 회식이 길어지면서 일부 술에 약한 직원들의 불만이 내재되어 있었다. 또한, 이러한 회식문화는 결국 업무효율성을 저하시키고 술로 인해 문제를 일으키는 직원이 발생할 수 있어 국권 위로부터 "911운동"과 같은 건전한 공단 회식문화 개선을 권고받은 바 있고, 또한 업무 내·외적인 부분에서 내부 직원 만족이 외부 고객 만족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결국 공단의 성과와도 직결되는 상황이 점점 가속화되고 있다.

따라서, 영남본부는 지난 3일 월례조회시 외부강사(부산 사상구 보건소장)를 초빙하여 "건전한 음주문화 만들기"에 대한 열띤 강의를 전직원이 경청하였고, 이러한 여세를 몰아 최강 사업지원부는 회식장소에 대한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건전한 음주·회식문화 개선을 위한 술선수범 부서로 거듭나기 위해 만장일치로 VIPS를 찾게 되었다.

사업지원부 직원 10명중 5명이 대부분 가사를 병행하고 있는 여직원들에게 간단한 질의응답 결과, 오랜만에 동료들과 특별한 경험을 해서 오히려 만족도가 높았다는 긍정적인 의견이 대다수였다. 이번 회식문화 개선사례가 영남본부 뿐만 아니라, 공단내 모든 부서에 널리 퍼져 나가길 필자는 기대해 보며, 이렇게 서로 배려하고 긍정적으로 조직문화 개선에 앞장서는 우리들이 바로 "VIPS(Very Important Persons)가 아닐까?" 행복한 상상을 해 본다.

(영남본부 김시환 기자)



계시판

주요뉴스 (4.9 ~ 4.16)

- 자산 2조원 이상 공공기관 재무관리계획서 제출해야(한국일보, 중앙일보, 매일경제, 한국경제, 국민일보 4. 9)
- 코레일 이번엔 전산장애... 2시간 반 에·발매 중단(동아일보, 중앙일보, 조선일보, 매일경제, 한국일보, 국제신문 4. 9)
- 철도시설공단 직무적합도 모델 개발 적용(충청투데이 4. 9)
- 철도공단 호남본부, 식목행사 및 청렴캠페인(무등일보 4. 9)
- 철도공단 또 파격 인사 실행(서울신문 4. 10)
- 기고-국책사업 반대의 허상과 진실(국민일보 4. 10)
- 나주시·전남도, KTX 나주역 통과 놓고 갈등(경향신문 4. 10)
- 인천~서울역 공화철도에 내년 청라·영종역 신설(조선일보 4. 10)
- 국책 기간사업 조기 준공 '박차' (경북일보 4. 10)
- KTX 남원역 상시 정차 결정(광주일보 4. 10)
- 공화철도 청라·영종역 내년 신설(한국일보 4. 11)
- 전라선 KTX열차 남원역에서 상시 정차(한국일보 4. 11)
- "KTX 사고 이제 그만" 전문가 연구팀 발족(동아일보 4. 11)
- 철도가 가져온 변화 바람 다시 불고 있다(대전일보 4. 12)
- 철도 경쟁체제 급가속 (문화일보 4. 13)
- 여수엑스포 가는 길 험해졌다 (중앙일보 4. 13)
- '방만' 공기업 부채비율 악화 (서울신문, 한국경제, 경향신문 4. 13)
- 철도시설공단, 상반기 철도안전 홍보캠페인 (충청투데이 22)
- "GTX사업, KTX노선과 분리착공시 표류" (경기일보 02)
- 철도안전 홍보 캠페인(강원일보 4. 14)
- 철도시설공단 강원본부 안전홍보 캠페인(강원도민 4. 14)
- 철도운송 독점체제 변화 필요하다(경향신문 4. 16)
- 철도 르네상스시대를 열어야 할 때(광주일보 4. 16)
- 춘선 승리 업고... KTX 민간개방 속도 내나(한국일보 4. 16)
- 수도권고속철도 공사 보험사 동부화재 낙찰(대전일보 4. 16)
- 고속철도 위 고속철도(충청투데이 4. 16)
- 고속철도 오송 고가구간 상부 횡단 강고 설치(충청투데이 4. 16)
- 오송고가 교량상부 횡단 강고 설치(중도일보 4. 16)
- '고장철' 코레일 또 탈선(경기일보 4. 16)
- 화물열차 2량 탈선 '큰일날뻔...' (경인신문 4. 16)

경조사

■ 기획혁신본부 성과관리처 차두표과장 부친상
- 발 인 : 2012년 4월 12일(목)

■ 영남본부 건설처 박진용차장 부부상
- 발 인 : 2012년 4월 16일(일)

■ 호남본부 시설운영처 박준선차장 장녀혼
- 일 시 : 2012년 4월 21일(토) 오전 11시
- 장 소 : 대전 둔산사학연금회당홍 2층 컨벤션웨딩홀